

폴란드인이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발음상의 음성학적 문제
 Basic Phonetic Problems Encountered by Poles
 Studying Korean.

Anna Isabella Paradowska/안나 빠라돕스카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as a preliminary study on phonetic and phon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olish and Korean languages. In this paper an attempt is made to examine the most conspicuous difficulties encountered by Polish learners who begin to speak Korean (and in doing so, I would hope that it might be of help to future learners of both languages).

Since the phoneme inventory and general phonetic rules for both languages are very different, teaching and learning accurate pronunciation is extremely difficult for both the Poles and Koreans without any previous phonetic training. In the case of Polish and Korean we can see how strong and persistent the influences of the mother-tongue are on the target language. As an exampl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basic differences between Polish and Korean consonants. The most important consonantal opposition in Polish is voice-/voicelessness (f. ex.: [b] / [p], [g] / [k]) while in Korean, opposition such as voice-/voicelessness is of secondary importance. Therefore Korean speakers do not perceive the difference between Polish voiced and voiceless consonants. On the other hand, Polish speakers can not distinguish Korean lenis / fortis / aspirated consonants (f. ex.: ㅂ [b] / ㅃ [p] / ㅍ [ph], ㄱ [g] / ㅋ [k] / ㆁ [kh]) opposition.

The other very important factor is palatalization which is of vital importance in Polish and, because of this, Polish speakers are extremely sensitive to it. In Korean palatalization is not important phonetically and Korean speakers do not distinguish between palatalized and non-palatalized consonants.

The transcription used here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and the Korean Phonetic Alphabet" (1981) by Hyun Bok Lee.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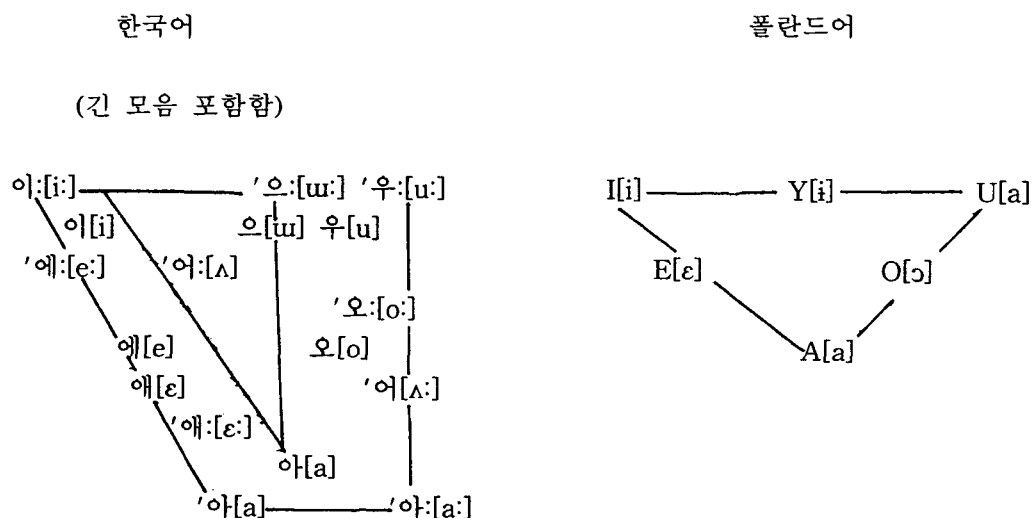
외국어를 학습할 때 외국어의 말소리에 모국어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어릴 때 익힌 혀나 입의 모양, 조음 위치 그리고 유무성 구분 문제, 억양 등은 외국어를 발음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특히 학습 대상 언어의 말소리가 모국어의 말소리

와 많이 다를 때 그러하다. 음성학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그런 버릇을 고칠 수가 있다. 폴란드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폴란드어와 한국어의 말소리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폴란드인은 한국어를 학습할 때 폴란드 말소리의 음성학적인 자질을 한국어의 말소리에 적용해 발음한다. 이 경우에 모음이든 자음이든 발음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어와 똑같은 소리가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예: ㅏ [a] - a, ㅣ [i] - i, ㄴ [n] - n, ㅁ [m] - m).¹⁾ 첫째, 폴란드어에 없는 말소리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둘째, 음성학적으로든 청취적으로든 폴란드어에 비슷한 소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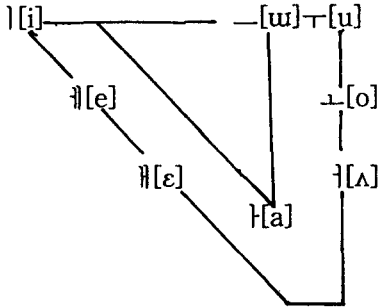
I. 모음에 관한 음성학적 문제

우선 모음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일단 폴란드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를 간단하게 기술해 보겠다. 한국어에서 모음 수는 긴 모음을 제외하고 단순 모음이 모두 8개 (이 [i], 아 [a], 어 [ʌ], 오 [o], 으 [u], 우 [u], 에 [e], 애 [ɛ])가 있고 이중모음이 12개 (예 [je], 얘 [jɛ], 야 [ja], 여 [jʌ], 요 [jo], 웨 [we], 위 [wi], 워 [wʌ], 의 [wi], 왜 [we], 외 [ø], 유 [ju])가 있다. 폴란드어에는 모음이 아래와 같이 6개 있고 게다가 a[ɔ], e[ɛ]이란 비모음 2개도 있다.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사법은 이현복 “국제 음성 문자와 한글 음성 문자 - 원리와 표기법” (1981)에서 제시한 것임.

(긴 모음 제외함)



1.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음 위치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들 두 언어는 원순 정도(degree of roundedness)에서 차이를 보이고(예를 들어서: ㅜ [u] - u [u]), 폴란드어에는 장단 차이가 없다. 모두 짧은 소리이기 때문이다.

2. 폴란드어의 y [ɨ]는 한국어의 ㅜ [u]보다 더 중앙 모음이고 - 즉 [i]의 조음 위치와 더 가깝다²⁾ - 혀 위치가 더 아래에 있다. 그래서 폴란드인이 한국말의 [u]를 발음하면 한국인은 자주 [i]로 듣는다. 예를 들어서: “다음”이란 단어를 [taim]이라고 듣고, “모음”은 - [moim]으로, “자음”은 - [jaim]으로 듣게 된다.

3. 또 다른 문제는 o [ɔ], 오 [o], 어 [ʌ]에 관한 것이다. 폴란드어에는 o [ɔ]만 있어서 한국어의 [o]와 [ʌ] 구별이 안된다. 그래서 보통 똑같은 [ɔ]로 발음한다. 때때로 폴란드인은 한국어의 오 [o]를 [u]처럼 발음한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오 [o]는 폴란드어의 [u]처럼 원순이기 때문이다.

4. 모음 체계에서 애 [ɛ]와 에 [e]에 관한 문제가 있다. 오/어와 같이 폴란드어에는 e [e]가 있다. 물론 폴란드어에도 “에”와 비슷한 소리가 있다. 이 음은 구개음 후어나 구개음 화한 자음 뒤에 [ɛ]가 오게 될 때만 [e]로 발음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에”와 비슷한 발음을 내려면 애 [e] 앞에 있는 자음을 구개음화 시킨다. 사실 한국어의 애 [ɛ]와 에 [e]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개”는 [ke]라고 발음해야 하지만 “개”는 [kɛ]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개”를 [ke]로 발음하든 [kje]로 구개음화 하여 발음하든 그 차이를 인식하여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폴란드 사람에게는 [kje]라고 (“계”라고 표기) 발음할 때 [kje]와 [ke]가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들리더라도 한국인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II. 자음에 관한 음성학적 문제

자음 체계에서는 모음 체계에서보다 문제가 더 많다. 폴란드어에는 자음이 28개(즉: b [b], p [p], d [d], t [t], g [g], k [k], w [v], ź(rz) [ʒ], ż [z], s [s], ś [ɕ], sz [ʃ], cz [tʃ], c [ts], ć [tɕ], dz [dʒ], dź [dʒ], dż [dʒ], m [m], n [n], ń [ɲ], l [l], ł [w], r [r], j [j], h(ch) [x])가 있

2) Ibid. 모음 사각도

으나 한국어에는 자음을 표시하는 글자가 (ㄱ [g], ㅋ [k], ㆁ [kh], ㄷ [d], ㅌ [t], ㅈ [th], ㅊ [j], ㅍ [c], ㅅ [ch], ㅂ [b], ㅍ [p], ㅑ [ph], ㅓ [sh], ㅆ [ss], ㅗ [m], ㅛ [n], ㅜ [r], ㄹ [l] / [r], ㅎ [h]) 모두 19개가 있다. 그런데 폴란드어에서 유무성 대립이 글자로 구분되지만, 한국어에는 유무성 대립이 글자로써 없다. 폴란드인이 한국어를 들을 때 모음 가운데 자음이 있으면 그 자음을 유성으로 듣고 그렇게 발음한다.

5. 폴란드어의 자음 대립은 유무성이고 (예: k [k] / g [g], b [b] / p [p], ć [ts] / dź [dz], s [s] / z [z], 등) 한국어에서는 거센소리 (aspirated) / 된소리 (fortis) / 예사소리 (lenis)이라는 삼 중 대립을 이룬다. (예: ㅋ [kh] / ㄱ [k] / ㆁ [g], ㅑ [ph] / ㅍ [p] / ㅂ [b], ㅅ [ch] / ㅍ [c] / ㅓ [j], 등). 한국인이 폴란드어의 t [t]는 된소리 ㅌ [t]로 듣는다. 폴란드인은 처음에는 이 삼 중 대립에서 아무 차이를 못 느낀다: 즉, 가 [ga], 카 [kha], 까 [ka]는 똑같은 ka [ka]³⁾로 들린다. 발음 훈련을 조금 받은 후에 폴란드인은 이 세 가지 소리 중에 된소리 (fortis)는 구별하게 된다. 그런데 거센소리 (aspirated) / 예사소리 (lenis) 대립은 구별하지 못한다. 특별한 음성학적인 훈련을 받아야 이런 자음을 구별할 수 있다.

ㄷ [d] / ㅌ [t] / ㅊ [th] 그리고 ㅂ [b] / ㅍ [p] / ㅑ [ph]도 위와 같다.

6. 한국말의 ㅓ [j], ㅅ [ch], ㅍ [c]는 위에서 기술한 자음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원래 폴란드어에는 c [ts] / dz [dz], ć [ç] / dź [dž], cz [tʃ] / dż [dž] 세 종류의 유무성 대립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의 ㅓ [j] / ㅅ [ch] / ㅍ [c]와 대립할 수 있는 자음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말의 “ㅅ” 경우에는 폴란드말의 c [ts] / dz [dz] 로 대신할 수 있다.

한국인이 듣기에 폴란드어의 유성음은 dz [dz] 한국어의 어두에 있는 ㅓ [j]와 가장 가깝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ㅓ [j]는 완전 무성음이 아니고 예사소리 (lenis)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귀에는 유성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폴란드인들이 듣기에는 폴란드어의 ć [ç]와 cz [tʃ] 사이에 있는 것 같고, 한국인은 구개음화에 귀가 익숙해 있지 않아서, c [ts]와 ć [ç] 사이에 있는 자음으로 인식한다.

7. 폴란드인은 한국어의 ㅓ [sh]를 항상 된소리로 ㅆ [s]로 발음한다. 폴란드어의 s [s]는 된소리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말의 ㅓ [sh]는 거센소리 (유기음, aspirated)인 편이다.

결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폴란드어가 폴란드인의 한국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이유는 두 언어의 음성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는 유무성 대립이 없고, 예사소리 / 거센소리 / 된소리 대립이 있는데 반해 폴란드어에는 유무성 대립이 있고

3) 폴란드어에 있는 k [k]는 한국의 된소리 ㅋ [k]와 같은 음성 기호를 쓰지만 실제 음가는 다르다: 유무성 대립만 있기 때문에 k는 때에 따라서 ㄱ, ㅋ, ㆁ로 발음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이 듣기에 /k/는 기식이 없기 때문에 [ㄱ]은 아니고, 예사소리[ㄱ]보다는 강하게 발음이 되므로 결국은 [ㅋ]에 가깝다고 인식하게 된다.

예사소리 / 거센소리 / 된소리 대립이 없다. 또 하나의 차이는 폴란드어에 구개음화 현상이 있고 폴란드인은 이를 청각적으로 잘 인식하는데 반해 한국어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있기는 하나 음성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개음화 된 소리와 구개음화 되지 않은 소리를 청각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참고 문헌〉

- 이현복 -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1993
 이현복 - 국제 음성 문자와 한글 음성 문자, 과학사, 1981
 Maria Dłuska - Fonetyka Polska cz. I : Artykulacje głosek polskich, Wydawnictwo Studium Słowiańskiego Uniwersytetu Jagiellońskiego, Kraków, 1950
 Tytus Benni - Fonetyka opisowa języka polskiego, Zakład Narodowy im. Ossolińskich, 1964
 Ryszard Patyn - Phonetic-acoustic analysis of Polish speech sounds, Wydawnictwa Uniwersytetu Warszawskiego, 1987